

# 제2차 실행위원회 갖고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 인준

## 신규 조직된 감사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위원 구성 마무리



지난 3일 오전 개최된 제2차 임원회의 모습

103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의가 지난 3일 총회본부 대예배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실행위원회의에선 경과보고 및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 인준의 건이 처리되었다.

해외선교위원회 조직구조의 건이 보고되었다. 강령국 목사(늘사랑)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최상훈 순영산 라건국 목사가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다.

기독교교육위원회 조직도 보고되어 위원장에 김규식 목사(소망교회) 서기 홍혜표 목사가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이밖에도 총회본부 국장 신규채용의 건도 보고되어 신규 사무국장에 김덕중 목사, 선교국장 한종우 목사, 교육국장 인현교 목사가 각각 신규 임명이 보고되었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을 비롯한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인준의 건이 상정되었다. 총회장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지난 회기 이미 검증된 후보들도 있으니 권위를 살리기 위해 인준 인사 전원을 민장일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개정된 현장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개인별 무기명 투표로 처리

키로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 인준은 2/3에 미치지 못하고 모두 부결되었으며, △유지재단 이사 김종현 장로의 건은 재인이 가결되었다. △성결교신대원 이사 재인의 건은 장윤석 목사를 재임기로 결의하였으며 신임감사 인준은 부결되었다.

△총회성결교신대학교 이사 인준의 건도 처리되었다. 문봉교회 염두선 목사가 추천되어 가결되었다. 이밖에도 △본지 감사와 성결사 감사의 건도 처리되어 박철수 송영만 라건국 목사를 각각 인준결의하였다.

한편 앞서 열린 임원회의에선 지난 5월 총회시 개정된 현장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행정재판위원회 구성의 건을 놓고 위원구성이 추천되어 이를 실행위원회에 상정키로했다.

감사위원회는 각기관 감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장은 총회감사인 황성환 목사와 김신용 장로가 개정된 현장에 명시된 대로 인준되었다.

행정재판위원회는 이상록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4인의 목사와 장로 2인으로 구성이 마무리되며 이날 인준 처리되었다.

동행(구리계), 창신성결교회, 신수동성결교회를 거쳐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요원 방문을 끝으로 여정을 마쳤다.

이날 한 참석자는 “과거 성결의 역사 흔적을 걸어가며, 성결의 근간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은혜의 복음, 영혼구원, 나라와 민족사랑, 성결체제, 성서신학중심 등은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생애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역사의 현장이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우리 예성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후학들에게 역사를 통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켜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역사는 과거의 한 시간이 아니다. 구령사업에 정진했던 선배들의 혼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까이다. 향후 이러한 성결교회 역사탐방이 교단적 차원에서 더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전문 학습현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 목사고시 교회사 응시생들 '역사기행' 나서

## 초창기 성결교회 현장 찾아 역사와 고취



급변 제55회 목사고시 교회사 응시생들이 성결교회의 뿌리를 찾는 역사기행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경성성서학원지인 현 아현성결교회에 모여 성결교회의 태동과 경성성서학원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투어를 시작했다.

이번 역사기행의 주관자인 임흥근 목사는 “성결교회의 역사 현장이 우리 주변 도처에 현존하고 있다”며 성결교회

의 목회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성결교회의 역사현장을 직접 밟으며 성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투어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첫 노방전도지인 황토현(지금의 세종대로 사거리)으로 이동하여 당시의 노방전도 모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성결교회의 첫건물 부교동 복음전도관을 거쳐 연동, 성결교회 설립지,

동행(구리계), 창신성결교회, 신수동성결교회를 거쳐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요원 방문을 끝으로 여정을 마쳤다.

이날 한 참석자는 “과거 성결의 역사 흔적을 걸어가며, 성결의 근간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은혜의 복음, 영혼구원, 나라와 민족사랑, 성결체제, 성서신학중심 등은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생애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역사의 현장이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우리 예성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후학들에게 역사를 통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켜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역사는 과거의 한 시간이 아니다. 구령사업에 정진했던 선배들의 혼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까이다. 향후 이러한 성결교회 역사탐방이 교단적 차원에서 더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전문 학습현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 1천2백여 청년들 운집, 두 손 들고 뜨겁게 찬양

## 청년부, 2024 성청연합수련회 '더웨이(THE WAY)'



총회 청년회전국연합회(회장 최진현)가 주최하고 청년부(부장 이창기 목사)와 청년사역위원회(위원장 최상현 목사)가 주관하는 제4회 성청연합수련회 '더웨이(THE WAY)'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1,200여명의 전국교회 청년 및 관계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청년사역위원회 사무총장 이 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청년연합회 최진현 회장의 기도 후 예성장로회장단의 특송과 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김 총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변화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걷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자”고 격려했다. 이어서 청년사역위원회 위원장 최상현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공로패 수여식도 있었다. 직전 회장이었던 이나라 청년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신임원들의 인사 시간도 가졌다.

'THE WAY'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 첫 세션은 다윗의열쇠선교회 대표 김선교 선교사가 나서서 진행했으며, 세움교회 이종화 목사, CG선교회 대표 윤성철 목사 등이 나서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이밖에도 뮤지컬 '죽은 자의 어린양' 공연과 영화 'THE SCRIPT' 감상의 시간 등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삶에 지치고 힘들어 갈길이 막막했는데 길을 찾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압도하며 새 힘을 얻었다”, “힘이 나는 것 같다”, “내가 혼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환영사를 전한 청년부장 이창기 목사도 “오늘 이 자리가 축제의 하루 은혜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교단 총무 권순달 목사도 격려사를 통해 “믿음의



총회장 김만수 목사

- 9.3 임원회, 실행위원회, 한국총회장단 회의
- 4 의왕시장 면담
- 5 한창개장위원 모임
- 7 총서지방회 동선교회 임직 설교
- 8 안양지방회 안양중앙교회 원로 목사 추대 담임목사 취임 설교
- 9 우성장학회 모임
- 12 웨슬리 군선교연합회 설교 성결인 한마당 축제 모임 의왕감찰회
- 26 지색병원 직원 설교
- 30 유럽지방회 방문

**본전 1:3**

찬송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밤이아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결신문 592호는 9월 24일에 발행합니다.

# 성결교신대원, 2학기 개강예배 및 후기 학위 수여식 함께 가져

## 5명의 졸업생 배출... 더 큰 전진과 진보 다짐



성결교신대원이 지난 2일 2학기 개강예배와 함께 제46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총회본부 대예배실에서 개최된 후기 졸업 및 학위수여식은 총 5명의 원우들이 졸업했다.

송민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가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권 목사는 “하나

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쓰이실지를 바로 알아야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진행된 졸업식은 졸업생 호명, 졸업장 및 학위 수여 후, 총회장 이사장장 모범상 등이 수여되었다.

총회장상에는 유지항 원우가, 이사장상에는 조성연 원우, 모범상에는 진은자 원우가 각각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원장대행 최윤영 목사와 이사 전승환 목사가,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가 권면과 격려사를 전했다. 이들은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재학생 대표의 송사도 있었다. 송은유 원우는 “선배들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며,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고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장 대표 조성연 원우의 답사 후 총무처장 위성설 목사가 파송기도를 통해 졸업생들을 격려했으며 참석한 교부원들의 인수기도와 축복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강서소망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서울서지방회 강서소망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 1. 교회소개**  
가. 교회명 : 강서소망교회  
나. 교회주소 : 서울 강서구 양천로59길 46, 506호 (대일빌딩)
- 2. 청빙교역자 지위: 담임목사**
- 3. 청빙사유: 은퇴**
- 4. 지원자격**  
가. 연령 : 1970.1.1. ~ 1984. 12.31  
나. 학력 :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신학교 및 대학원 예성성결교단 졸업자)
- 5. 제출서류**  
가. 사역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 및 가족소개서  
다. 목회계획서  
라.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마. 건강진단서(본인 및 사모 최근 6개월 이내)
- 6. 급여**  
가. 사전협의
- 7. 제출기간**  
2024년 8월 20일 ~ 9월 30일 한함
- 8. 제출처: piclove@nate.com**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강서소망교회 청빙위원회

# 온라인에서 만나는 성결신문

<http://sknews.org>

### 한발 앞선 기사와 정보로 다가갑니다

- 중요한 행사나 회의는 당일 기사를 업데이트 합니다.**  
2주 동안 소스들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지면에 실지 못한 기사나 사진이 풍부하게 남겨 있습니다.**  
지면에 다 실지 못한 기사나 취재 뒷이야기 그밖에 현장감을 실린 다양한 사진이 제공됩니다.
- 특저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사에 대한 댓글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기사의 스크린이 가능합니다.**  
보편하고 싶은 기사는 따로 옮겨서 추가 할 필요 없이 바로 스크린이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기사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내에서 원하는 기사를 선택, 상대방에게 직접 메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이신분과 똑같은 형태의 신문(PDF 서비스)이 제공됩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종이신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발행된 신문은 오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07년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성결신문사